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

잠긴 문 안으로 오신 예수님

CBMC 김해한마음지회 토요조찬포럼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새벽 공기를 가르며 확인한 기계 소리

어제 퇴근길에 마주한 서늘한 갈등


“내가 과연 이 자리에 걸맞은 사람인가”

“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저녁] 빛이 완전히 사라진 시간.

소문(내가 주를 보았다)이 퍼졌음에도, 그들은 스스로 문을 잠갔습니다.



소문이 퍼진 그날 저녁, 제자들은 문을 잠갔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 요한복음 20:19

빛이 꺼진 저녁 (The Evening)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치며
빈 무덤의 소문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스스로를 가두다: κεκλεισμένων

단순히 '닫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한국어 번역

‘문을 닫았더니’
(단순한 행동)

헬라어 원문: κεκλεισμένων

의미: 문을 꼭꼭 잠갔고,
지금도 계속 잠그고 있다.

상태: 외부의 거대한 힘(두려움)에
의해 수동적으로 갇혀 있는
완료 상태.

그들이 진짜로 잠근 것은 나무 문이 아니라, 소망과 미래의 문이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이어진 끝없는 추락
두려움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겟세마네

'같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외면하고 잠들다



체포 현장

군인들이 오자 한 명도 빠짐없이 도망치다



베드로의 부인

세 번 연속 '나는 모른다'고 저주하다



십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부재하다 (여인들만 남음)



부활 당일

'주를 보았다'는 외침에도
문을 열지 않다

다섯 번의 완벽한 실패.
그들은 스스로 문을 열 힘을 잃었습니다.

공황 상태의 한복판에 확고하게 서다: εἰς τὸ μέσον

두려움은 시끄럽지만, 부활은 고요합니다.





부서진 내면을 향한 첫 마디, 살롬

‘어디 갔었냐? 왜 도망쳤냐?’ — 책망 대신 선언된 첫 마디.

하나의 절에 담긴 두 개의 ‘보내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요한복음 20:21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 예수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 우리

한국어로는 똑같은 ‘보내다’지만, 헬라어 원문은 완전히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권위의 파송에서 따뜻한 동행으로

구분	 ἀποστέλλω (아포스텔로)	 πέμπω (팸포)
은유	사령관이 '출동!' 명령을 내리는 것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동행하는 것
성격	권위를 부여한 공식적, 거창한 파견	일상을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
거리감	보내고 나면 보내는 자와 멀어짐	보내는 분이 파송된 자와 늘 함께 있음
시제	완료 (이미 끝난 사건)	현재 (지금도 진행 중)
나의 현실	주일 예배의 사명 선언	월요일 출근길, 바로 오늘 아침

우리가 받은 것은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격 증명 없이,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파송하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파송(Pempe)의 타이밍입니다.
훈련을 마친 후가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된 다음도 아닙니다.
잠긴 문 안에 숨어있는 '그 상태 그대로' 선언하셨습니다.

[잠긴 문 안 (그날 밤)]

- 도망치고 부인함
- 숨어서 문을 잠금

Pempe (펨포)

[세상을 뒤집은 사람들
(사도행전 17:6)]

- 매 맞으며 기뻐함
- 세상의 역사를 바꿈

'무엇이 이들을 바꾸었습니까?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닫힌 문을 뚫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 가지 방법

비즈니스 세계로의 부르심, '펨포(πέμπω)'의 기적

두려움이 굳게 닫아버린 일터의 문



사업의 위기



직원과의 갈등



과거의 실패



자격지심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우리가 잠근 것은 나무 문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은 '할 일 목록'이 아닌 '동행'을 주셨습니다

아포스텔로 (ἀποστέλλω)



- 거창한 공식 파견
- 완료형 ("이미 끝났다")
- 파송 후 멀어짐 (보내는 사람과 분리됨)

팸포 (πέμπω)



- 따뜻한 일상의 동행
- 현재형 ("지금 이 순간")
- 파송 후에도 함께함 (보내는 분이 같이 감)

우리는 혼자 파견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일터로 함께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비즈니스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 일터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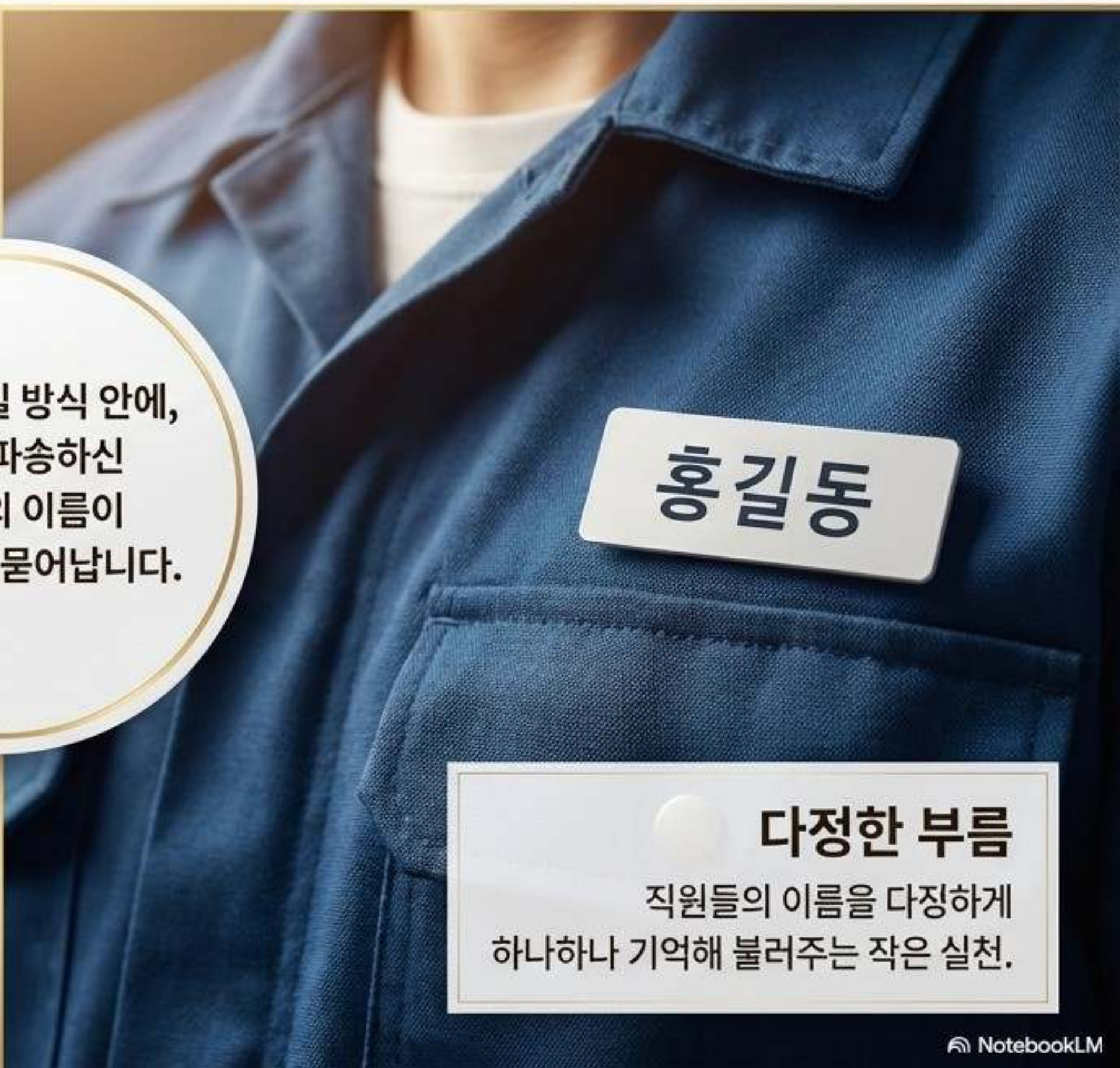
멀리 해외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등
이주민 직원들이 바로 주님이 내 비즈니스 현장으로 보내주신
최전선의 선교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지를
내 공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둘째, 매일의 정직하고 따뜻한 비즈니스 방식이 곧 선교입니다.



그 소박한 일 방식 안에,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정직한 서명
거창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계약서 한 장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작성하는 것.

다정한 부름
직원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하나하나 기억해 불러주는 작은 실천.

셋째,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 역시 여전히 파송지입니다.



주님의 파송(핼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갈등할 때
- 이주민 직원의 이름조차 다 외우지 못해 허덕일 때
- 스스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동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광야 속 서로의 '엘림(오아시스)'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 (일터)

치열한 경쟁,
직원과의 갈등, 피로



엘림 (우리 공동체)

온전한 심, 영적 회복,
깊은 연결과 격려



가나안 (세상)

재충전된 힘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한마음지회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베이스캠프(엘림)가 됩니다.

잠긴 문 안으로 오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내십니다 (πέμπω)
나의 일터가 선교지, 글로벌 김해의 미래

1
광야
(일터)



2
엘림
(한마음지회)



3
가나안
(김해·세상)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
오늘 여기 다시 모였습니다.

두려움이 파송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잠긴 문이 예수님을 막지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월요일 아침 일터로
우리를 펴포(πέμπω) 하십니다.